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이준희

한국복지대학교 게임 콘텐츠과

Jun-Hee Lee(xmlsea@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기업(조직)과 지역사회의 공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본 대상의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인증사회적기업 250개로 무작위(random) 추출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 2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6개 세부가설을 정한 후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적 자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적 자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사회적 자본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의 성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lements of virtuous cycle to lay a foundation for the coevolution of corporations(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hrough corporate growth and distribution based on the social capital of social enterprises. The study aimed to categorize social capital into structural, cognitive, and relational capital and examine their effects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subject companies include 250 of social enterprises registered at and certifi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rough random sampling. The study set two hypotheses and 6 particular hypotheses and perform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looked into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economic performance and found that relational capital was proper for it. Second, the study also looked into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ocial performance and found that relational capital was proper for it.

■ keyword : | Social Capital | Social Enterprise |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

1. 서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다차원성 때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차원의 개념들이 합을 이뤄낸 결과로써 어떤 측면을 부각하는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의 조직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매개로 하여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결시켜 활성화된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1].

Bourdieu는 “제도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합”이라고 사회적 자본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지속되는 기득권의 유지와 계급구조의 공고화를 주장하고 있다[2].

Fukuyama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특정 집단 또는 조직에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비공식적 가치 또는 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협동을 가능하게 한다[3].

전통적 복지국가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현금급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특정한 집단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이외에도 환경의 개선, 문화, 교통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원봉사자와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상호부조를 강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목적과 다른 비경제적 목적들과 관련지어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준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를 지향하며, 신뢰, 네트워크, 규범, 비전 공유 등 사회적 자본의 창출은 사회

적 기업을 위한 그 자체에서 목적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다수 이해관계자 구조는 사회적 기업과 환경 사이에 다양한 집단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사회적 기업 안에 다수의 연결고리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와 사회적 자본의 유발은 다수 이해관계자인 이사회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내부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그들 환경과의 연계를 증대시킴으로써 형성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유의 특징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없다면 사회적 기업이 일정한 수익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도 낮추게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의 자산은 물리적인 자산보다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수요의 파악과 서비스의 질 보장,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확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기업의 전문성 확보 등 인적관계에 의해 형성된 자산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기업이 운영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신뢰와 내부자원의 부족으로 지역사회나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스스로의 역량뿐 아니라 다른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생존해 나간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관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사회적 기업의 독특한 특징이다. 시민이 사회적 기업의 공동생산자로서 참여하고 이는 사회적 기업의 자원동원의 중요한 연결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자본 축적 능력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과 성과연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과[5]에서 기업이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재조합하여 위험을 분산하거나 자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효율적 활용 목적이 있으며,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6]은 중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으로서 조직 차원의 배려만 고려되었다.

일반적인 기업생태계가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투

자와 수익의 선순환적 공존 발전을 추구하는데 비해 사회적 기업이 속한 사회생태계는 협력적, 이타적 공진화(co-evolution)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선순환[7]을 핵심가치로 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기업(조직)과 지역 사회의 공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순환 요소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나 정책 수립자에게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3가지 차원의 접근은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다[8]. 이 중 첫 번째는 구조적 차원이다. 구조적 차원은 개인이나 다른 조직단위와 상호 연계된 정도를 말한다. 두 번째는 관계적 차원으로 사회적 관계의 질로서 '신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은 개인과 다른 연계된 조직단위들 간에 조직의 현실과 비전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차원은 조직 내 존재하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 또는 유대관계 연결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어느 누가 아니라 '누구를 어느 누구'에 대한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 개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연

결망 유대를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9].

관계적 차원은 관계의 질적인 차원으로서 '신뢰'의 개념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의 관계적 배태성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는 행위자들간의 양자(dyad)적 관계에 의한 배태성을 말하는 것이다[10]. 따라서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특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관계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신뢰, 규범, 의무 혹은 기대 등이 있다[8].

인지적 차원은 조직의 현재 상황과 의미를 구성원들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구성원들의 비전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열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 언어와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지식을 획득하고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중국에는 조직발전 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11].

조직은 인지체계에 의하여 새로운 현상에 대해 집합적 해석이 이루어진다. 조직이 가진 인지체계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믿음, 신념, 가치의 결집체이다[12]. 따라서 공유된 비전은 조직구성원들의 집합적인 목적이나 열망을 형성하게 한다[13].

조직에서 비전의 공유는 공식적인 비전확산을 위한 노력과 공유된 언어나 집합적 이야기의 공유와 같은 비공식적인 상징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8]. 조직구성원들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동일한 지각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피할 수 있고, 아이디어 혹은 교환기회를 보다 자유롭게 해준다.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은 자원의 교환이나 결합의 잠재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결과적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자원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13].

2. 사회적 기업의 성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사회적 기업이 정상적인 조직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로서의 성격이 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Defourny가 제시한 사회적 기업을 다음과 같이 경

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과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14].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기업의 양적인 성과와 질적인 성과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자면, 경제적 성과란 기업으로서의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성과로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금전적인 성과와 경영자립 정도로 정의내릴 수 있다 [15].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기업의 기업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목적의 산출을 지칭한다. 사회적 목적의 달성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로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까지 수반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 사회적 성과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목적에 의해 산출된 성과를 나타낸다.

3.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기업 성과 연계

경영자의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기업이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재조합하여 위험을 분산하거나 자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5].

Lerner, Brush & Hisrich는 기업가의 네트워킹 활동이 기업의 수익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들의 활용이 기업의 수익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는 기업의 기업가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가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7].

Adler & Kwon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을 결속력의 정도로 파악했으며 규범은 기업 간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결속력은 조직과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는 공동체의식이나 신뢰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18].

가용자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극히 제한적인 중소

기업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종(異種)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는 그들의 네트워킹 활동이 기업성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가에게 확보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의 효과가 네트워킹 활동과 기업성과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소기업융합교류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전국 315명의 중소기업 기업가 응답을 활용하여 분석결과, 네트워킹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심리효과인 사회적 지지가 네트워킹 활동과 기업성과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인 정보 및 자원접근성은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9].

조직비전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신뢰의 매개효과[20]에 의하면 조직비전 명료성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21]을 보면 최고경영자팀의 사회적 자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연구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hapiet & Ghoshal은 기업 내 연결 네트워크는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의 소싱(sourcing)과 전파를 촉진시키는 것을 파악하였다[8].

이용재[22]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데 비전공유와 가치일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조직의 비전이 공유되고, 종업원과 조직의 가치관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한 것을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조직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이 비취약계층이고 정규직일수록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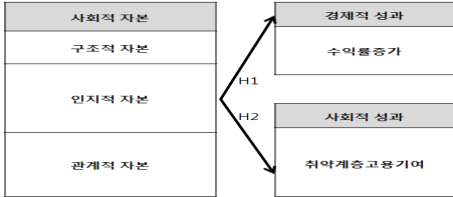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 변수를 다루고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한 설문 응답자의 노력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전제로 매개변수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인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 특성의 변수는 김동현 외[23]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에서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의미상 유사한 문항을 제외하고 구조적 자본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연결성, 인지적 자본에 해당되는 비전설정과 공유, 관계적 자본에 해당되는 호혜적 규범, 신뢰, 협력, 단체참여 정도를 반영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이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변수는 최무현 외[24]의 연구를 참고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1. 변수의 설정

요인	변수	항목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의 네트워크 연결성	① 의사소통 ② 접촉의 용이성
	인지적 자본의 비전 설정 및 공유	① 비전의 명확성 ② 비전 공유
	관계적 자본의 호혜적 규범	① 규범과 규칙의 확립 ② 규범과 규칙의 준수
	관계적 자본의 신뢰	① 사람에 대한 신뢰성 ②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 ③ 다른 주민들에 대한 신뢰 ④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신뢰 ⑤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
	관계적 자본의 협력	① 업무협조 ② 갈등해결 노력
	관계적 자본의 단체 참여 정도	① 지역행사참석
사회적 기업의 성과	경제적 성과	① 수익률증가
	사회적 성과	① 취약계층고용기여

2. 연구가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원봉사자와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성과 상호부조를 강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한다[25].

박명선·강상목[26]은 계층분석기법(AHP)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의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사회적 자본, 정부지원정책, 사업환경, 경영전략 등이 중요하다고 선별하였다.

사회적 자본, 지식경영, 그리고 조직성과 간의 인과관계[27]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 내에 신뢰와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슈퍼터rian 지식이 축적되고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창현[28]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지역공동체의 의식과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소외계층의 고용창출을 증진시켜 주며, 나아가 소득 향상, 재정 확충, 빈곤해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2개의 대가설과 6개의 소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2. 사회적 자본에 따른 경제적 성과 가설 설정

가설1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구조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인지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관계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사회적 성과 가설 설정

가설2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구조적 자본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인지적 자본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관계적 자본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변수의 정의 및 설문지 구성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조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형태나

구성으로 정의한다[13]. 인지적 자본은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 언어와 코드로 정의한다[13]. 관계적 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직접적인 유대 관계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관계적 결과를 강조하여 신뢰, 규범과 상호계제, 상호의무와 기대, 서로에 대한 동일화로 정의한다[8].

경제적 성과는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동반하여 사회적 기업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29]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면서 재무적 성과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률증가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성과란 사회적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및 사회공헌의 달성정도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으로 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취약계층고용기여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비교적 적합도가 높은 항목들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측정 항목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수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김동현 외[23]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최무현 외[24]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구성하는 항목은 수익률증가를 사용,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구성하는 항목은 취약계층고용기여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인증 사회적 기업을 주요 모집단으로 했다. 이는 표본 선정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표본 대상의 기업은 전국의 인증 사회적 기업 250개로 무작위(random) 추출하고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메일과 우편 송부, 방문을 통하여 총 22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빠진 항목이 있는 설문지 등을 제외하고 20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구분된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각 변수를 측정하고 있는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제외하고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사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분석 결과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70.0%, 여성이 30.0%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많았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34.0%, 30대가 24.0%, 40대가 35.0%, 50대가 7.0%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8.0%, 전문대졸이 47.0%, 대졸이 45.0%로 나타났다. 석사, 박사는 응답자에 조사되지 않았다. 직급의 경우 대표가 72.0%, 임원이 21.0%, 종사자가 7.0%로 나타나 대표자와 임원이 주로 응답자로 조사되었다. 조직의 경우 사단법인이 2.0%, 재단법인이 4.0%, 사회복지법인이 2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 상법에 따른 회사가 30.0%,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이 3.0%, 비영리민간단체가 2.0%, 민법상조합이 18.0%, 협동조합이 18.0%로 나타났다. 유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이 33.0%,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2.0%, 지역사회공헌형이 6.0%, 혼합형이 49.0%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일반적 특성(n=200)

변수명	주요 내용	빈도	백분비(%)
성별	남	140	70.0%
	여	60	30.0%
연령	20대	68	34.0%
	30대	48	24.0%
	40대	70	35.0%
	50대	14	7.0%

학력	고졸	16	8.0%
	전문대졸	94	47.0%
	대졸	90	45.0%
응답자직급	대표	144	72.0%
	임원	42	21.0%
	종사자	14	7.0%
조직	사단법인	4	2.0%
	재단법인	8	4.0%
	사회복지법인	42	2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	2.0%
	상법에 따른 회사	60	30.0%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6	3.0%
	비영리민간단체	4	2.0%
	민법상조합	36	18.0%
유형	협동조합	36	18.0%
	일자리제공형	66	33.0%
	사회서비스제공형	24	12.0%
	지역사회공헌형	12	6.0%
	혼합형	98	49.0%
합계	200	100.0%	

2.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들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예비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항목으로 판정된 설문항목들을 제외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하위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전체	% 분산	% 누적	Cronbach's α
관계적 자본	호혜적규범1	.847	.154	.096	3.728	33.8	90	.790
	호혜적규범2	.733	.388	.140				
	신뢰1	.575	-.141	.192				
	신뢰2	.575	.072	.051				
	단체참여	.783	.254	.540				
	협력1	.767	.324	.459				
	협력2	.764	.036	.075				
구조적 자본	네트연결성2	.123	.895	.053	1.995	18.1	52.0	.723
	네트연결성1	.097	.806	.020				
인지적 자본	비전설정및 공유2	-.040	.154	.725	1.458	13.2	65.2	.695
	비전설정및 공유1	-.027	.388	.594				

KMO=.754, 근사카이제곱=817.757, p=.000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 3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고유값이 1.4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입력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KMO 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결과를 보면, KMO=.754,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2=817.757(p=.000)$, 설명력은 65.28%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검증되었다.

표 6. 성과관련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하위변인	요인1	요인2	전체	% 분산	% 누적	Cronbach's α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고용기여	.971	.238	1.000	50.000	50.000	.630
	경제적 성과	수익률 증가	.238				

KMO=.500, 근사카이제곱=47.475, p=.000

성과관련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KMO=.500는 Bartlett 구형성 검증 $\chi^2=47.475(p=.000)$, 설명력은 100%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검증되었다.

3.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Pearson 상관 계수가 활용되었으며, 양측검증 방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7.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성과 간 관계

변수	사회적자본	구조적자본	인지적자본	관계적자본	경제적성과
사회적자본	1				
구조적자본	.772**	1			
인지적자본	.775**	.330**	1		
관계적자본	.717**	.330**	.420**	1	
경제적성과	.328**	.163*	.100	.558**	1

* p<.05, ** p<.01, *** p<.001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성과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328(p<.01)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조적 자본의 경우에는 .163(p<.05), 관계적 자본의 경우에는 .558(p<.05)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한계	VIF
(상수)	1.504	.433	3.473	.001		
사회적자본	.563	.115	.328	4.879***	.000	1.000
구조적자본	.163	.075	.216	2.131**	.034	1.000
인지적자본	.100	.075	.133	1.333	.181	1.000
관계적자본	.558	.115	.488	4.839***	.000	1.000

* p<.05, ** p<.01, *** p<.001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준화계수 $\beta=.328$ 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10.3%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계수가 .328($p<.01$)로 유의하면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에 경제적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사회적 자본 하위변인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한계	VIF
(상수)	.604	.392		1.540	.125		
구조적자본	.014	.072	.012	.194	.847	.847	1.181
인지적자본	-.208	.082	-.166	-2.525**	.012	.782	1.278
관계적자본	.998	.105	.624	9.467***	.000	.783	1.278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 R제곱=.334 수정된 R제곱=.323 F=32.715***

* $p<.05$, ** $p<.01$, *** $p<.001$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지적 자본의 경우에 표준화계수 $\beta=.166$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적 자본의 경우에 표준화계수 $\beta=.624$ 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계적 자본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계수가 .558($p<.01$)로 유의하면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관계적 자본이 높은 경우에 경제적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32.3%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적 자본에 따른 경제적 성과 가설 검증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연구가설 채택여부
가설4	사회적 자본 → 경제적 성과	채택
가설4-1	구조적 자본 → 경제적 성과	기각
가설4-2	인지적 자본 → 경제적 성과	채택
가설4-3	관계적 자본 → 경제적 성과	채택

인지적 자본은 회귀분석에서 경제적 성과에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나 인지적 자본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계수가 .100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인지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관계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효과가 있었다.

4.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Pearson 상관 계수가 활용되었으며, 양측검증 방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11.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성과 간 상관관계분석

변수	사회적자본	구조적자본	인지적자본	관계적자본	사회적성과
사회적자본	1				
구조적자본	.772**	1			
인지적자본	.775**	.330**	1		
관계적자본	.717**	.330**	.420**	1	
사회적성과	.232**	.030	.167*	.392**	1

* $p<.05$, ** $p<.01$, *** $p<.001$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성과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자본의 경우에 .232($p<.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적 자본과 관계적 자본의 경우에 각각 .167($p<.01$), .392($p<.0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구조적 자본의 경우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한계	VIF
(상수)	2.263	.405		5.585	.000		
사회적자본	.362	.108	.232	3.351***	.000	1.000	1.000

종속변수: 사회적 성과 R제곱=.054 수정된 R제곱=.049 F=11.232***

* $p<.05$, ** $p<.01$, *** $p<.001$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준화계수 $\beta=.232$ 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성과 간의 상관계수가 .232($p<.01$)로 유의하면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에 사회적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이 4.9%로 낮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자본외의 다른 변수들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표 13. 사회적 자본 하위변인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한계	VIF
(상수)	1.710	.399		4.286	.000		
구조적자본	-.122	.074	-.118	-1.666	.097	.847	1.181
인지적자본	.034	.084	.030	.403	.688	.782	1.278
관계적자본	.608	.107	.418	5.671***	.000	.783	1.278
중속변수: 사회적 성과 R제곱=.165 수정된 R제곱=.153 F=12.948***							

* p<.05, ** p<.01, *** p<.001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관계적 자본의 경우 표준화계수 β =.418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계적 자본과 사회적 성과 간의 상관계수가 .392(p<.01)로 유의하면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관계적 자본이 높은 경우에 사회적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15.3%로 나타났다. 구조적 자본과 인지적 자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4.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사회적 성과 가설 검증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연구가설 채택여부
가설5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성과	채택
가설5-1	구조적 자본 → 사회적 성과	기각
가설5-2	인지적 자본 → 사회적 성과	기각
가설5-3	관계적 자본 → 사회적 성과	채택

사회적 성과에 관계적 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자본과 인지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협력, 정부와의 협력, 다른 사회적 기업의 협력 등의 노력과 사회적 기업과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에서 달성이 가능한 명확한 비전 설정과 공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증 분석이다. 즉, 응답자가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성과 영향 요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주목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선순환 요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적 자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적 자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기업의 내부·외부환경,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자본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성별과 직급에서 편중된 결과로 인하여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분류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사회적 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기업가에게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향후에는 정부의 보다 다양한 정책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연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Revisited," The Responsive Community, Vol.5, No.2, pp.18-33, 1995.
 [2]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1986.
 [3] F. Fukuyama,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4] 김운태, "사회적 기업의 트라이레마-한국형 모델

- 의 전망,” 사회와 이론, 통권14집, pp.243-273, 2009.
- [5] 정대용, 양준환,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및 네트워킹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가와 중국기업가의 네트워킹 특성을 중심으로 한 비교,”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2008.
- [6] 장수덕, 주연매, “중국 중소기업내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제13권, 제2호, pp.283-299, 2012.
- [7] 김성기, 김정원, 변재관, 신명호, 이견직, 이문국, 이성수, 이인재, 장원봉, 장종익,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2014.
- [8] J. Nahapiet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242-266, 1998.
- [9] 이영현, 김안국, 유한구, 김미란,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II):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경쟁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2007.
- [10] 박찬웅,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춘계 특별 심포지움 발표논문, 한국사회학회, 2000.
- [11] 장용선, 김재구, “사회적 자본의 지각이 지식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인사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pp.59-91, 2006.
- [12] 박순미,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지적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3] W. Tsai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1, No.4, pp.464-476, 1998.
- [14] J. Defoumy,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Routledge, 2001.
- [15] 강동형, *국내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6] 박내영,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전남지역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7] M. Lerner, C. Brush, and R. Hisrich, “Israeli Women Entrepreneurs: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2, No.4, pp.315-339, 1997.
- [18] P. S. Adler and S. W. Kwon,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7, No.1, pp.17-40, 2002.
- [19] 정대용, 유정환, “기업가적 네트워킹 활동이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367-395, 2012.
- [20] 김기근, 문명, 조운형, “조직비전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실패의 매개효과,” 한국인사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504-520, 2012.
- [21] 최영근, “최고경영진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와 벤처캐피탈 투자에 미치는 영향,” POSRI 경영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pp.108-139, 2011.
- [22] 이용재, “사회적 기업에서 비전공유와 가치일치가 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3호, pp.206-213, 2012.
- [23] 김동현, 김영재, 이영찬, *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24] 최무현, 이영범, 정무권,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조직역량, 지역자산활용,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25] 정인철, *빅 소사이어티*, 이학사, 2011.
- [26] 박명선, 강상목, “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중요도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5권, 제3호, pp.69-88, 2012.

- [27] 이영찬, “사회적 자본, 지식경영, 그리고 조직성과 간의 인과관계,”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4호, pp.223-241, 2007.
- [28] 조창현, “사회적 기업의 사회자본과 지역발전에 대한 실증연구: 고용창출과 빈곤해소로의 경로분석,” 창조와 혁신, 제5권, 제2호, pp.145-180, 2012.
- [29] 박미란, *사회적 기업 경영자의 리더십 역량과 기업환경특성 및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저 자 소 개

이 준 희(Jun-Hee Lee)

종신회원



- 1995년 2월 : 충북대학교 컴퓨터 공학과(공학사)
 - 1998년 8월 : 충북대학교 컴퓨터 공학과(공학석사)
 - 2016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복지대학교 게임 콘텐츠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적 기업, 게임 콘텐츠